백두산

22호 - 주체91(2002)년 5월 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 광주에서 계란세례 받다

대학생들 ≪통일방해꾼 이회창의 광주방문반대≫ 투쟁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내 행사장 근처에서 대학생 30여명이 승용차에 타고가는 이회창패당에게 계란세례를 안겼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통일방해꾼 이회창의 광주방문반대≫ 등의 플랭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이회창이 탄 차량행렬을 향해 계란을 던진것입니다.

이회창에 대한 대학생들의 계란흔적은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에 대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항거와 분노의 표시로써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으로 말하면 희세의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입니다. 친일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릴적부터 사대매국노로써의 기질을 키워온 이회창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반역행위를 본격적으로 자행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의 더러운 시종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회창은 애당초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반대했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시비하면서 그 이행에 고의적으로 난관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는 통일의 시대의 방해자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고 부시미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는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검증≫이니 하는 따위의 반통일주장을 펴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방해해나섰습니다.

더욱이 이회창은 상전 미국의 인준을 받아 차기 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찬양하면서 부시의 이북을 ≪악의 축≫을 이룬다는 망발에 적극 찬성해 우리 국민과 온 겨레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행정협정의 파기, 서울 용산기지와 매향리사격장 등 미군기지반환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들의 반미투쟁을 어거지로 반대하면서 당국이 결정적으로 탄압할 것을 제창했는가 하면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북에 대한 주적론의 철회를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북의 성의와 아량에 의해 남북관계개선이 다시 서둘러지고 있는데 못마땅해 하며 공동선언의 이행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가 감히 차기 대선을 장악하려고 한나라당의 경선후보로 나섰으니 청년학생들이 어찌 분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게 계란세례를 안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저지른 반통일적 죄행에 비춰보면 이날 청년학생들이 안긴 계란세례는 그야말로 약과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은 지금 국민들이 자기를 *******알고 더 큰 변을 당하기 전에 한나라당 대통령경선후보에서 탈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4일

네티즌 25% 민주노동당 찍겠다

◆ 설문목록 ◆

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입니까?(총 투표수 2409표)	
1, 한나라당	135 표 (6%)
2, 새천년민주당	1452 표 (60%)
3, 자유민주연합	11 표 (0%)
4, 민주노동당	591 표 (25%)
5, 사회당	55 표 (2%)
6, 녹색당	27 표 (1%)
7, 지방자치개혁연대	17 표 (1%)
8, 무소속 및 기타	19 표 (1%)
9, 없다	102 표 (4%)

네티즌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까?

디지털말(http://www.digitalmal.com)을 찾는 네티즌 60%가 올 6.13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25%의 네티즌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말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폴 투표결과, 총 투표수 2,409표 가운데 60%인 1,452표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2위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25%인 591표를 얻었다.

3위는 한나라당으로 6%인 135표를 얻었다. 이밖에 사회당 후보 55표(2%), 녹색당 27표(1%), 지방자치개혁연대 17표(1%), 자민련 11표, 무소속 및 기타 후보 19표(1%), 지지 후보 없다가 102표(4%)로 집계됐다.

디지털말이 실시한 이번 인터넷 폴 여론조사는 이 사이트를 찾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1인 1표)하며 일반 네티즌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25%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상당수 개혁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전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의 낙선 또는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희기자
디지털말 2002/05/04

2 종합
- **김정일**총비서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나시였다
- 조국통일3대원칙 / 사상의 강군
- 조국통일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야 말것
- 유럽동맹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
- 쁠럭불가담운동조정위원회
- 조선의 참모습을 보았다
- 최성홍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4 노작
-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3)

6 세기와 더불어
7장 5절 백마에 대한 추억 (2)

8 칭송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3)
-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

10 조선중앙통신
- 일본 과거청산회피행위 용납하지 말아야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창조적인 사고력을 천품으로 지니고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 메이데이와 노동대중의 자세

13 투쟁보도
-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한마당
- ≪내가 만난 **김일성**, **김정일**≫
- 10기 한총련 출범
- 남북에 부는 훈풍
- 민주노총, 노동자후보 대거 출마
- 민화협 ≪6.15선언 공동행사≫ 제의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

김정일총비서께서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주석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4일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을 만나시였다.

외무상 웬 지 니엔, 주석부 판공실 주임 웬 까잉 징, 사법상 웬 딩 록, 우리 나라 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도 티 화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쩐 득 르엉주석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쩐 득 르엉주석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이 4일 선물을 드리였다.

외무상 웬 지 니엔, 주석부 판공실 주임 웬 까잉 징, 사법상 웬 딩 록, 우리 나라 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도 티 화와 그밖의 일행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쩐 득 르엉주석이 선물 내용을 설명해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물을 보시고 이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은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여 있는 사적물들을 돌아 보고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쩐 득 르엉주석은 방문록에 남긴 글에서 만경대는 정말 조선혁명의 요람이며 조선인민의 현 세대와 후대들을 혁명전통과 애국심으로 교육교양하는 귀중한 학교이라고 지적하였다.

베트남주석은 이날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등과 베트남주재 조선대사 리홍,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손님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새 세기의 최대걸작품으로서 온 세상의 기대와 관심속에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또한 이날 쩐 득 르엉주석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그는 가야금소조실과 손풍금소조실에서 높은 예술적기교를 보여 준 소조원들을 축하해 주고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베트남주석과 그 일행은 궁전극장에서 이곳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주석일행의 일부 성원들이 3대혁명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선민족의 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주체61(1972)년 5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에서 이 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주석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조선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이 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근본초석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사상의 강군

오늘 조선인민군대는 사상의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다. 일찌기 군건설과 활동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면서 사상론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주체83(1994)년 12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라고, 자신께서는 사상론을 주장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하며 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영들과 훈련장들마다에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려는 구호들과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려는 글발들이 새겨 지게 되였다.

여기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원쑤들과 무자비하게 싸우려는 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 져 있다.

인민군군인들이 간직한 이런 신념과 의지는 그 어떤 절해고도속에서도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낳게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한민전≫대변인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발표 30돐에 즈음하여 담화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대변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발표 30돐에 즈음하여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1972년 5월 3일에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변인은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 들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선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불멸의 통일헌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에도 조선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통일의 기치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석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의 통일리정표이라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한민전≫전위투사들은 전 국민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추켜 들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4일

유럽동맹과의 관계가 좋게 발전되기를 희망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의 조선방문 1돐

조선인민은 조선과 유럽동맹사이의 관계가 쌍방의 리익과 새 세기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좋게 발전되기를 희망하고있다고 ≪로동신문≫이 강조하였다.

3일부 신문은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의 조선방문 1돐에 즈음하여 실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이 대표단의 처음으로 되는 조선방문은 새 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선과 유럽동맹 그리고 그 성원국들과의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썼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해 5월 초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의 조선방문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대표단을 여러차례나 만나주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은 조선방문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인식과 리해를 새롭게 가지게 되였으며 유럽동맹과 그 성원국들과의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려는 우리의 립장을 잘 알게 되였다.

대표단의 조선방문은 조선유럽동맹관계정상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관계설정후 대사들의 호상교환등 후속조치들이 취해 지고 있고 조선에 대한 유럽동맹과 그 성원국들의 인도주의협조와 농업복구를 위한 협조가 성의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호상교류와 협조가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유럽동맹과 그 성원국들을 비롯한 유럽나라들과의 선린우호, 협조관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4일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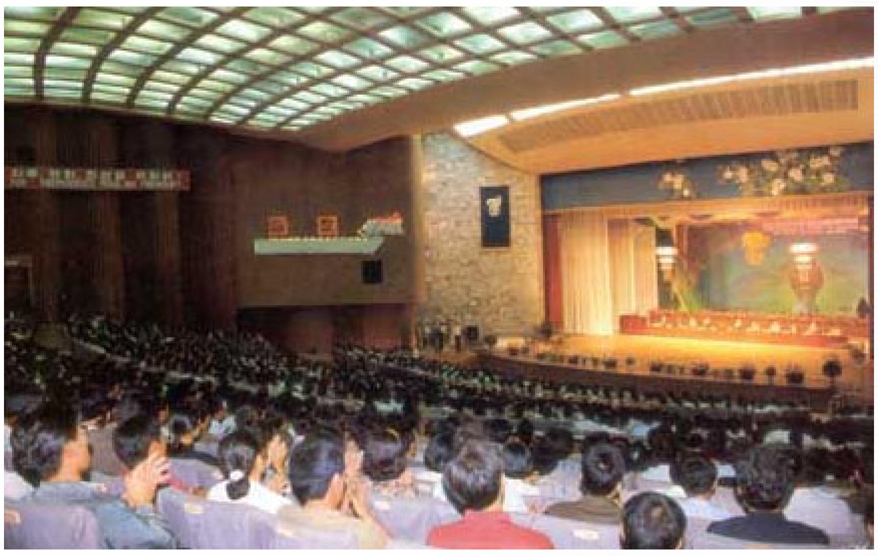
쁠럭불가담운동조정위원회 상급회의 최종문건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운동조정위원회 상급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건은 회의참가자들이 1972년 7월 4일 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의 통일이 조선인민의 념원대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민족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고 문건은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조선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단장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과 리념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것을 대외정책의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어떤 강권과 전횡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새 세기의 정의로운 세계구조건설을 위하여 주동적인 역할을 하며 성원국들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련대성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집단적자력갱생에 기초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남나라들사이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수립해야 할것이라고 단장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선의 참모습을 보았다

≪아리랑≫을 관람한 외국인참관객들의 반향

대형배경대가 움직이고 공연무대가 가지각색의 전광으로 비쳐 질 때마다 참관석을 메운 세계각국의 참관객들로부터 경탄의 목소리와 절찬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관객들은 작품의 규모와 형식에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고 있었으며 ≪아리랑≫에 담겨 진 통일념원,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에 대하여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상해에서 온 조영씨(23살)는 ≪집단체조를 보는것이 처음인데 조선인민들이 아주 활기가 있고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가 있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춤 추는 장면이 인상에 남았다며 ≪아리랑≫이 ≪특색 있고 민족적 정서가 넘치는≫ 공연이였다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일본 熊本부터 찾아 온 田中純一씨(50살)는 일반적인 일본사람들처럼 조선의 집단체조에 대하여 소문만 듣고 왔다고 한다. 공연을 보고 나니 ≪규모가 크고 굉장한 공연≫이였다고 감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으며 ≪통일과 관련된 주제가 들어 있어 큰 감명을 받았고 조선인민들이 전쟁이 아니라 자주적통일을 원하고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고 감상을 말하였다.

≪아리랑≫을 관람한 외국손님들은 조선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공연을 통해 실감하였으며 서방세계가 요란하게 선전하는 ≪위험한 나라≫와는 다른 조선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일본에서 온 사우디아라비아인 기술자인 마제트 아르크리휘씨는 ≪모든 장면이 훌륭하고 인상에 깊이 남았다. 내가 이제까지 여러 예술공연을 관람하여 왔는데 ≪아리랑≫이 으뜸이고 더 오래 평양에 체류할수 있다면 나머지 10번은 볼것이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서방세계의 언론은 조선을 위험한 나라, ≪악의 축≫, 테로국가라 부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지적은 엉뚱한것이며 조선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한것이다.≫고 언론들의 악선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다그라스 부로데릭크 WFP 중국주재대표는 ≪이 나라 인민들은 정말로 순직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선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였으며 ≪나는 조선에 대한 악의에 찬 선전들을 믿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틀린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대표단의 어느 한 남성활동가는 특히 작품의 2장이 인상에 남았다며 ≪씩씩해서 좋았다. 보기에 아주 시원하다.≫고 출연자들의 체조동작을 직접 본따면서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그는 공연을 통해 희망에 넘친 조선의 참모습을 볼수가 있었고 ≪조선식사회주의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2002/05/01

최성홍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반통일대결분자

3일부 ≪로동신문≫은 얼마전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 최성홍이 미국에 건너 가 미국상전의 대북강경정책을 극구 찬양하면서 그로 하여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듯이 떠들어 댄것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격화를 노린 도발적인 악담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고 북남대결과 반공화국압살을 추구하는 철두철미 반통일전쟁정책이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조성된 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는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해 파괴되였다.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북남관계는 결코 오늘과 같은 원상회복의 길에 들어 서지 못하였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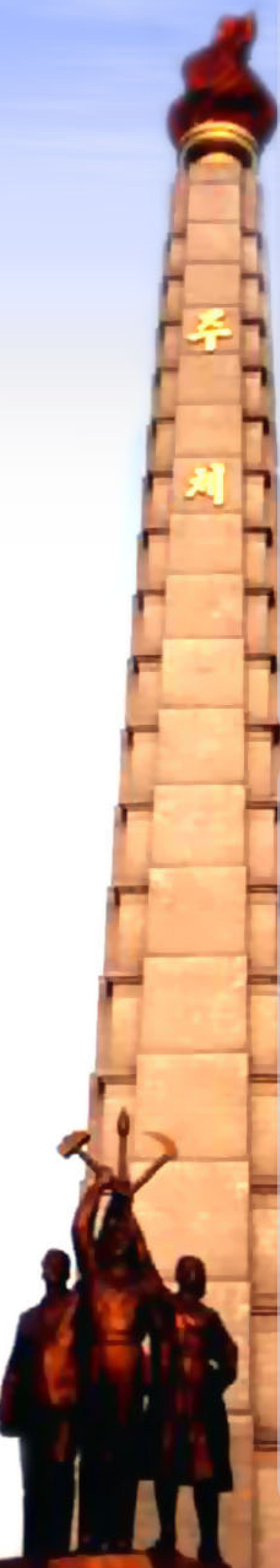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일치한 반대배격을 받고 있는 상전의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환영해 나선 최성홍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자, 반통일대결분자이다.

민족단합과 통일에 백해무익한 최성홍역도와 같은 악질적인 반북대결분자들을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도,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립장을 밝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3)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 1972년 5월 3일



2.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할 데 대하여

나는 남조선 측 대표를 다시 만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남조선측에서 대표가 혼자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같이 왔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이와 같은 접촉이 잦게 되면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만나지 조차 못하던 것이 오늘은 대표들이 오고가며 만나고 있으니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전진인 것입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서로 오고가며 자주 만나 면목도 익히고 의견도 나누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조선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한 강토 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민족성도 강하고 민족적 자존심도 높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36년 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내선일체≫요 뭐요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놀음을 하였지만 끝내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어떻게 둘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민족의 분열을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은 북반부동포들이나 남반부동포들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조국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조선언론계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대화 있는 대결≫이요, ≪대화 있는 경쟁≫이요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결이나 경쟁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서로 승부를 겨룬다는 뜻인데 승부를 겨루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한다면 몰라도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합니다. 합작이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제는 합작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북과 남은 대화를 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그 과정에 민족의 힘이 더욱 커지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질 것입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야 우리 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부터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 합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해 나가야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신임한다고 하여서는 누가 무슨 속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지 일을 같이해 나가느라면 오해하고 있던 문제도 풀리고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인민생활문제도 더 잘 풀 수 있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경제적으로 합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과 남은 지하자원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분업과 교역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쇳돌이 무진장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많이 약탈하여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수박껍질을 핥다가 간 셈입니다. 우리의 탐사일꾼들은 일제놈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곳에서 많은 쇳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천일대에서도 몇 억 톤의 쇳돌을 찾아냈고 황해남도에서도 몇 십억 톤의 쇳돌 매장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풍산을 비롯한 북부내륙지대에도 굉장히 많은 쇳돌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사일꾼들이 초보적으로 찾아낸 쇳돌만 하여도 100억 톤 이상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품위도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나라 쇳돌의 철 함유량은 다 35%이상입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세계적으로도 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쇳돌이 부러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반부에는 쇳돌 뿐 아니라 연, 아연, 동을 비롯하여 다른 광물자원도 많습니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 니켈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자체로 니켈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합금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공업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료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올 수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를 두어두고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사오겠습니까.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오지 않고도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으며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철로 기계를 만들어 팔아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평등한 원칙에서 가질 수 있고 인민들의 생활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기계를 사가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수산자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 동해에는 해마다 500만~600만 톤의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추정한 숫자이지 실지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똑똑히 알지 못합니다. 명태가 한창 밀려올 때에는 명태 떼의 폭이 3,000메타나 되고 길이가 5,000 메타나 되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오지만 우리는 지금 기껏 하여 60만 톤밖에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밀려온 명태를 10%밖에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명태는 50%까지 잡아도 그 자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동해에서 해마다 명태를 250만 톤씩 잡아내도 일없습니다. 남북의 어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물고기잡이를 한다면 많은 명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민들을 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분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고 남조선에서는 무엇을 생산한다는 식으로 분담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도 서로 부담이 많이 적어질 것이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분야에서도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문화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단일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언어학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여 우리의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사람들이 접촉하여 말을 하여도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마디들이 적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서로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언어생활에서 차이가 커 가면 민족의 분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생활의 차이로 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은 합작하여 북과 남 사이에 말과 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조절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하면 우리 나라 말과 글의 우수성을 살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과학분야에서도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남에 있는 학자들보다 북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또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북에 있는 학자들보다 남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치면 과학연구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면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단독으로 국제

→

경기들에 나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군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단일 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나간다면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조선민족은 투지가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투지가 강하다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기술로써 이기는 경우보다 투지로써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북과 남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 단일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합작할 뿐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은 마땅히 정치적 합작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합작하여야 경제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고 문화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이 다른 것만큼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개 문제를 하나씩 떼여놓고 고립적으로 보지마는 우리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 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은 사회의 운동법칙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다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옳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문제를 풀려면 경제, 문화 문제를 풀어야 하고 경제, 문화 문제를 풀려면 정치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이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않으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합작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회담에서 토의되고 있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만 보더라도 얼핏보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만 남북사이에 정치적 불신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간단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 가운데 북반부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그에게 당신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니 그는 후에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북반부에 친척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제대로 찾아줄 수도 없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가 원만히 풀리자면 반드시 남북 사이의 정치적 합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비를 줄이는 문제도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공동성명에는 북과 남 사이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 있습니다. 남북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하여 공동성명은 발표하였지만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로부터 쌍방이 서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대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자체로 대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군대가 많으며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이 큽니다. 외래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데는 남북의 군대가 모두 20만 명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면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깊게 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명 정도로 줄여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만큼 우리는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조선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무서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시기부터 입니다. 나는 1955년 4월에 발표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전후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제기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이 잿더미로 되고 공업과 농촌경리가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과정에 빈농과 수공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의 중농과 부농도 거의 다 파산되었으며 도시의 상공업자들도 파산 몰락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굴러 떨어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며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경리를 협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자원성의 원칙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의 부농과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청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부림 소와 농기구가 모자라고 노력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의 힘을 합침으로써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사람들이 북반부에 들어와서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 사회주의 제도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작하고 단결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연방제는 지금 남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대표들, 저명한 인사들이 광범히 모여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활동하면 연방제가 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대외적 권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외적으로 두 개 나라로 활동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방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더 논의하면 보다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합작을 실현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당신들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야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빨리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군대를 내보내고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조선 측이 우리를 오해하고 불신임하는데 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만났는데 오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 털어놓고 말하여야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것은 딴 주머니에 감추어두고 미리 준비한 연설문이나 읽고 가서는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오해를 풀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합작을 실현하려면 또한 서로 욕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데 대하여 인내성 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우리와 합작하려고 한다면 반공선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남조선 측과 합작하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남조선 측 대표를 만났을 때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절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조절위원회는 빈말공부만 하지 말고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절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임의 표시로 서로 군대를 줄이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어놓은 이상 닫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문을 닫으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민들도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고 일단 일을 시작한 바에는 솜씨를 보여 조선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질질 끌어서 좋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끝)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5. 백마에 대한 추억(2)

백마는 영리하고 충실한 반면에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은 주인 아닌 남이 자기를 건드리거나 안장에 올라타는 것을 절대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싱검둥이가 말을 타고 싶어 고삐를 잡으면 빙빙 돌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뒷발질을 하거나 물려고까지 하였다.

조왈남도 백마를 타보려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백마를 툇마루밑에 세우고 빗으로 옆구리를 슬슬 빗어주다가 날파람 있게 몸을 날렸는데 안장에 몸이 닿는 순간 말이 옆으로 후닥닥 내뛰는 바람에 땅바닥에 엉덩방아만 찧었다.

이런 천대를 맛본후 조왈남은 아주 기발한 승마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이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에 말을 세워놓고 말이 풀을 뜯는 사이에 슬쩍 올라타는 것이였다. 하지만 그 방법도 조왈남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도 시궁창 벼락만 뒤집어썼다.

어린 전령병은 백마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회초리로 그 분풀이를 톡톡히 하였다. 그 후부터 백마는 조왈남이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들고뛰거나 발길질을 하였다.

그때 조왈남은 너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아무리 정을 다해도 말이 곁을 주지 않고 태워도 주지 않으니 중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왈남에게 백마가 너를 배척하는 것은 백마에게 바치는 너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성을 더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양마요령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조왈남은 내가 일러준 대로 백마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바쳤다. 백마가 그 정성에 정성으로 보답한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다.

하도 오래 전 일이어서 자질구레한 일화들은 거의 다 잊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장면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백룡이 소대장으로 활동할 때였다. 나는 나자구지방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기 위하여 오백룡소대를 데리고 마촌을 떠났다. 나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2-3세시간밖에 안되였다.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군중과의 사업까지 하고 나면 보통 밤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일이 정 밀릴 때면 밤을 꼬박 밝혔다.

소대장 오백룡

일행이 쟈피거우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말안장 위에서 말뚝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전날밤 마촌인가 십리평에서 밤샘을 한 후과였을 것이다. 백마가 소대의 앞장에 있었으므로 일행중 내가 존다는 것을 간파한 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대가 쟈피거우령을 넘을 때부터 말의 검음걸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감촉한 사람이 바로 오백룡소대장이었다.

백마는 앞발을 딱 가두어 붙이고 조심조심 오르막길을 톺아올랐는데 오백룡이 갑갑해서 짜증을 낼 지경으로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이 영국신사 같은 말이 오늘은 참 별나게도 걷는걸.≫

오백룡의 속생각이었다.

백마는 내리막길에서도 뒷발을 가두어 붙이고 힘들게 영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대열은 멀리까지 앞서나갔다. 뒤에는 백마와 나, 오백룡 셋만 남게되었다. 오백룡은 내가 걱정되어 줄곧 초조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상관이 앉아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 속을 조이기만 하였다.

백마는 고갯길을 다 내리자 쟈피거우 강가에 가로놓여 있는 진대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대나무 한 대쯤은 헐하게 살짝 뛰어넘던 명마가 별치않은 장애물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오백룡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백마가 저렇게 게으름을 부리는데 왜 욕도 안하고 재촉조차 하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잔등에 앉아 있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놈 참 명물인데!≫

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백마는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백마한테 오늘은 특식을 차려줍시다!≫

오백룡은 싱글벙글하면서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는 사이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생긴 모양인가.

≪갑자기 특식은 왜?≫

오백룡은 백마가 쟈피거우령을 어떻게 넘었고 또 진대나무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주춤거렸는 가를 흥에 겨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옛날에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말을 국마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이 백마를 국마라고 부르는게 어떻습니까?≫

≪왜 국마라고만 부르겠소. 백룡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천하마라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겠는데 ≫

≪천하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가는 말이란 뜻이지.≫

≪그럼 천하마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오중화형님이 그러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말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소. 어떤 나라 황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집정관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는 구만. 그 말은 상아로 만든 구유에 먹이를 담아먹고 황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담아마시면서 만사람의 경의를 받았다는 거요. 그럼 우리도 영의정이라는 벼슬이나 주어볼까.≫

≪어쨌든 이 말은 명물입니다. 잔등판에 눈도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고 계신다는 걸 알아냈을까요?≫

내가 고삐를 나꾸어채자 백마는 진대나무를 성큼 뛰어넘어앞으로 쏜쌀같이 내달렸다. 우리는 잠깐 사이에 소대와 함께 나자구 삼도하자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바위가 양옆에 우뚝 솟아 쌍을 이룬 곳이 있었다. 그 강에는 산천어가 많았다.

나는 풀밭에 금을 그어주고 백마의 목에 말고삐를 감은 다음 대원들에게 군중정치공작 임무를 주어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강기슭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화를 끝내고 백마가 있는 곳에 돌아간 나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어준 금 안에서 백마는 아까처럼 그냥 착실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말은 보기 드문 명물이었다.

그 말의 덕으로 여성혁명가 홍혜성도 사경에서 구원된 적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여고까지 다닌 인텔리였는데 용정에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하공작을 하다가 유격구를 천당으로 생각하고 왕청땅에 들어와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그의 아버지는 동의술을 가진 명의였다. 홍혜성은 유격구에 들어온 다음 아버지한테서 배운 묘술로 유격대원들과 주민들의 옴병을 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격구의 군대와 인민은 성미가 발랄하고 붙임성이 좋으며 동의술까지 가지고 있는 인텔리 출신의 이 아름답고 용감무쌍한 여성정치공작원을 무척 사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백마를 타고 조왈남이와 함께 서대파라는 곳으로 지방공작을 나가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급작스레 터져오르는 총소리를 들었다. 유격구에 ≪토벌대≫가 들이닥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성이 우리는 쪽을 향해 급보로 말을 달린 우리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지방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어 힘겨운 조우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발견하였다.

적들은 악악 소리를 지르고 헛총질을 해대며 그를 사로잡으려고 발악하였다.

나는 전투현장에까지 백마를 다급하게 몰아간 다음 체포의 위기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말에 제꺽 올려태웠다. 말도 내 뜻을 알아차렸는지 한 10리 길을 쏜살같이 냅다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적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유격구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의 백마를 명마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이 만일 백초구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 그 백마를 고맙게 추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타고 양수천자 일대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을 반유격구로 꾸려놓았다. 나자구,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 태평구와 함께 양수천자 일대의 남대동, 북대동, 석두하자, 가재골 일대와 도문 근처의 마을들에는 우리의 조직이 다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군마를 남에게 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독자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마와의 이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된 것은 오백룡이네 대원들과 함께 골방령인가 어디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보리고개를 넘기는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때 농량이 달려 고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적을 쳐서 주둔구역 인민들이 먹을 식

→

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노획한 식량만으로는 그 고장 사람들의 쌀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우리는 소비를 극력 줄여 저축한 쌀을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한편 끼니를 번지지 않을 정도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였다. 그러다나니 백마에게 차례지는 사료의 공급량도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귀밀이나 보리, 콩과 같은 고급사료도 고급사료지만 건초라든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곡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헐한 일은 아니였다.

충실한 나의 대원들은 백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부대의 활동정황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주변 부락들과 적구에 종횡무진으로 드나들며 백마에게 먹일 귀밀이나 소금같은 것을 제때제때에 구해오곤 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포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주이도 하였다.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모든 낟알들을 바수어 군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말에게 먹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백마는 그런 대원들이 가까이에 나타날 때마나 주둥이로 군복주머니를 툭툭 건드리곤 하였다.

대원들이 백마를 그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였고 나를 위해 바치는 혁명적 우정의 표시, 충성심의 표시였다.

나는 그 우정과 충성심이 못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들이 열성스레 사료를 장만하거나 백마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접을 이 이상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남들의 봉사에 습관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빨치산 시절의 나의 개체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가 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들한테 차례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례질 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였다.

나는 채 완쾌되지 않은 배장근통 때문에 몇 달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나의 충성스러운 애마를 농민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백마가 반유격구 같은데 가서 역축으로 이용된다면 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지 죽을 염려도 없을 것이였다. 처음에는 나에게 백마를 보내준 십리평의 머슴꾼 출신 노인에게 나의 애마를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노인이 별스레 생각하며 섭섭해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풍기사령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다 털어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의 그날 점심급식은 특식으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저축했던 사료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백마를 배불리 먹이시오. 오후에는 그 백마를 산너머 부락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을 반일회장에게 넘겨주어야겠소. 말이 떠날 때 남은 사료도 몽땅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역축이 없이 살아가는 제일 가난한 집에 백마를 주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풍기사량은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였다.

≪어서 나가서 명령을 집행하시오.≫

나는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엄하게 독촉하였다.

풍기사령이 나간 다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백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몰인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는 백마와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쇠빗과 털빗으로 여기저기를 긁어주고 손으로 갈기털을 몇십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말과 함께 걸어온 수천 리 노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여겨보던 백마의 눈에서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랐다. 이 애마가 어떻게 나와의 이별을 예감하였을까. 백마는 그때 분명 나의 얼굴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백마의 비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맛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미덕이 존재하며 그 미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백마야, 용서해다오, 너와 나는 오늘 아쉬운 대로 헤어져야겠구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아픈 이별이지만 이 이상 더 너를 타고 다니며 호강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해 천신만고를 다한 너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 한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말의 갈기털에 한참 동안 볼을 파묻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은 마음이 허전해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공연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조차 들었다. 하지만 이왕 내린 결단이니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의 사랑스런 백마에게 부디 근면하고 살틀한 주인이 차례질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풍기사령의 저녁보고를 기다렸다. 그런데 풍기사령은 저녁시간이 다되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날이 어슬어슬해질 무렵에 오백룡소대장이 밥상을 들고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규율을 위반했으니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나는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규율을 위반하다니?≫

≪제가 보고도 하지 않고 목재소를 하나 쳤습니다.≫

오백룡은 그 습격의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에게서 이웃 마을에 백마를 보내라는 과업을 받고 소대로 돌아간 풍기사령은 오백룡을 만나자 여사여사한 지시가 내렸는데 다른 명령이라면 다 집행하겠으나 그 명령이야 어떻게 감히 집행하겠는가고 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오백룡은 풍기사령의 말에 동감을 표기하였다.

≪대원들이 백마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 대장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백마를 어떻게 대장동지 곁에서 떼어놓는단 말이오. 대장동지는 상기도 배장근통 때문에 신고하고 계시지 않소. 우리가 사료라도 많이 장만해 놓고 강짜를 쓰면 대장 동지의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풍기사령 동무는 말을 이웃 마을로 보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매두어야겠소. 그 동안 나는 친화목재소에 가서 사료를 구해오겠소. 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보고하지 말아주오.≫

(내일 계속)

송시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3)

위대하여라
수령님 높이 드셨던 붉은 기폭에
인민의 운명을 싸안고
력사의 폭풍을 헤치시며
한평생 붉은기를 지켜 오신
김정일동지

그이를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다 듣고 다 보아 왔건만
다는 알수 없었어라
그이 높이 드신 그 기발에
얼마나 모진 천신만고가 깃들어 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은 뜨겁구나
피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행군 을 시작하던 그 나날
낮에 밤을 이어
대소한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북방의 공장과 마을을 찾으시느라
몇밤을 꼬박 새우신 장군님
건강을 념려하는 일군들에게
나직하나 절절히 하시던 그 말씀

- 나라고 왜 힘들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주저앉으면
붉은기가 한치 내려 지오
하늘이 무너져도 붉은기는 절대로 내리울수 없소
수령님의 존함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요!-

정녕 그이에게서 붉은기는
인민의 존엄
인민의 운명이였기에
누가 붉은기를 버리면
인민의 원수, 인간추물로 락인하시며
그리도 분노하시는것 아니던가

그이는 유년시절과 청춘시절도
붉은기에 다 바치시였고
세상 귀중한 자신의 한생을
주저없이 붉은기에 새겨 가고 계신다

그이에게는
지구보다 무거운 붉은기를
한손으로 높이 쳐드시고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위대한 힘이 있나니

오, 그 힘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하늘로 받드시는
절대적인 숭배
광풍으로부터 인민의 세상을 지키고 빛내시는
거룩한 선군령도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그이 높이 들고 가시는 기발앞에서
세계는 알았어라
붉은기가 나아가는 길은
선군, 오직 이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선군혁명의 길우에 세차게 나붓긴
그 붉은기로 우리 못 넘은 령이 없고
우리 못 헤친 파도가 없다
그 붉은기로 조국과 민족을 지켰고
정의와 사회주의운명을 지켰다
고난의 길에서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열어 놓았다

흠모

세계인민들은 당신을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 높이 우러르며 흠모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정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태양≫,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실 탁월한 지도자≫, ≪혁명의 영재≫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며 흠모하고 있다.

적도기니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투메프린시페 학생들의 자주연구소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신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민족적 또는 세계적 범위에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인민들과 민족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태양이십니다.≫

가이아나 루임벨트중학교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이브리바틀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바치신 노고와 그이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탄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귀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세계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실 탁월한 지도자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오늘 세계 모든 대륙 인민들은 당신의 탁월한 예지와 높은 영도적 권위, 완전무결한 영도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당신을 높이 흠모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제랄드 은구야이넨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세계혁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크게 기여하신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십니다.

…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일본의 과거청산회피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1)

아시아지역토론회에서 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홍선옥위원장의 기조보고

나는 먼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특히 년로하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길을 달려 와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과거 일제에 의한 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나는 이 기회에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활동을 꾸준히 벌리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진보적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성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것은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적정의를 확립하며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됩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데 기초하여 과거 피해자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 주며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운동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 및 인사들사이의 단결과 련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토론회 기조보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1.구일본에 의한 아시아 지역의 피해실태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거쳐 략타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수백수천만의 무고한 아시아인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저지른 전범국입니다.

일본이 ≪명치유신≫이후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제국≫으로 될 야망밑에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으면서 조선과 중국, 동남아시아나라 등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죄악은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습니다.

20세기의 전쟁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쟁타하기 위하여 일제가 도발한 1904년의 로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중국대륙침략 그리고 그 이후의 태평양전쟁은 철두철미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략타전쟁, 정복전쟁이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인류력사에는 미국의 인디안살륙만행, 히틀러의 유태인멸살행위 등 악명을 떨친 살륙만행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배타적인 인간참살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직성에 있어서, 또 살륙행위의 지구성과 그 규모, 그 방법의 잔혹성에 있어서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구일본군의 참살행위는 그 모든것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일찌기 조선반도를 저들의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대륙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침략을 개시한 구일본군은 강점지역들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라는 3광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평화적주민 수천만명을 부상 입히거나 살해하는 비인도적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침략시에 꾸민 간악한 음모와 군사적강점기간에 감행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제는 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온갖 위협공갈과 강도적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비롯한 이른바 ≪조약≫들을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파쑈통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장장 40여년간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형언할수 없는 정신적굴욕과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당한 피해와 손실, 고통은 헤아릴수 없이 컸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동조동근≫의 허황한 론리에 기초하여 ≪내선일체≫를 제창하면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통치기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선교육령≫ 등의 ≪법령≫에 의하여 민족성거세와 민족어말살책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의 넋을 버리고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영원히 없애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황국신민화정책≫의 구호밑에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뿌리뽑고 식민지노예로 길들이려 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청장년들을 ≪이민≫의 명목으로 만주와 일본 등 외지에 유괴하여 분산 와해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그 규모와 수단, 방법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이 강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일찌기 청일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시작되고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보다 로골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단말마적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인로력을 군권과 강권으로 징발하기 위하여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개정하면서 모든 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년령,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련행하여 생명의 법적담보가 없는 노예고역장, 전쟁죽음터로 내몰아 수 많은 사람들을 집단살륙하거나 로동능력상실자, 성기능불구자로 만드는 반인륜적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00여만명을 조선국내에서 징발하여 무보수강제로동에 내몰았습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철두철미 자기들의 리윤욕을 충족시키고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며 조선청장년들의 씨를 말려 조선민족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근 20만명의 애젊은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백주에 유괴, 랍치하여 ≪황군≫의 성욕을 채워 주는 희생물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대부분을 잔인하게 학살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장악된 일본군 ≪위안부≫피해생존자는 218명인바 공개증언에 나선 녀성은 47명이며 최근년간에 그중 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실시운영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상은 이미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특히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과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에서 발굴된 일본군≪위안소≫ 건물자리 등을 통하여 립증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소의 군≪위안소≫의 형태와 그 설치경위, 군≪위안부≫피해자들의 민족별 구성과 그들의 증언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보면 일본군성노예제도의 발생지가 바로 조선이고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조선사람이며 군≪위안부≫공급지가 조선이라는것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증언에 동의해 나선 1944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 가기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누충녀체험자의 증언은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기 시작한 조선에서부터 극비밀리에 실시된 일본군성노예제가 대륙침략수행과정에 더욱더 정책화되고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자, 진보적군중들과 무고한 주민 백수십만명을 쏴 죽이고 불 태워 죽이고 생매장해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살인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분출인 3.1인민봉기때만 하여도 7,500여명이 학살되고 1920년대에 간도땅을 불바다, 피바다로 전변시킨 일제의 간도≪대토벌≫시에는 6,000여호의 살림집들이 불 타고 3만여명이 참살되였습니다.

1923년 9월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 나자 일본정부는 민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 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군대와 헌병, 경찰은 물론 ≪자경단≫, ≪청년단≫을 비롯한 우익깡패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전역에서 조선인참살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꾜에서만도 6,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학살되였습니다.

1930년대초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를 ≪봉쇄≫하고 ≪압살≫하기 위한 일제침략군의 ≪토벌≫작전은 극악한 전쟁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공산당원 한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주민들을 죽여도 좋다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왕청, 화룡, 연길 등 각지에 건설된 혁명촌들을 말그대로 ≪초토화≫하여 수만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집단학살하였습니다.

이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일제의 가해수법은 사람의 입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을 지경으로 가장 잔인하고 악착하며 가혹하였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에 진출했던 구일본군이 보급로가 차단되자 강제련행해 온 조선인군속들을 수많이 잡아 먹었다는 식인행위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수십만점의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들, 막대한 량의 자연부원과 생산물을 략타해 간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물질적피해는 실로 천문학적인 수자에 달합니다.

일본이 대폭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에서 략타해 간 금은 363톤, 목재는 3, 000여만립방메터이며 쌀과 철광석, 강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자원은 그 수량을 헤아릴수 조차 없는것입니다.

패망후 일본은 응당 조선인민앞에 과거죄행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했어야 하였으나 미국을 등에 업고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범죄의 길에 들어 섰습니다.

특히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수만명의 구일본군잔당과 ≪경찰예비대≫를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방대한 수송수단으로 미제의 전쟁물자수송을 보장하였으며 군수기재의 생산과 수리, 군사기지제공 등을 통하여 조선전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조선전쟁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범죄국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됩니다.

그후에도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과거청산을 하지 않은 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하면서 과거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일제의 군사적강점후과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차별과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세기이상의 침략과 군사적강점, 략탈만행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정책으로 공공연히 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범죄로 되는것입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잔악하게 침해,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한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 전쟁범죄로 됩니다.

국제적으로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성문법에 따라 전쟁범죄나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 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공인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군의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및 도의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강좌 제10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4일

창조적인 사고력을 천품으로 지니고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사고력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사고력이라 하면 객관적인 현실을 보다 심오하고 완전하게 반영하는 높은 형태의 인지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나 창조적인 사고력이 없으면 재 머리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고 남만 쳐다보는 사대주의 사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자면 깊은 사색과 함께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어려서부터 어떤 문제든지 비교분석하고 수리 종합하여 새것을 발견하는 창조적 사고력을 지니신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는 어려서부터 탐구심이 남달리 강하였다고 하시면서

≪어떤 문제든지 비교분석하고 수리 종합하여 새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어린시절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라고 교시하였습니다.

사고는 높은 정신활동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통 유년기에는 사고가 극히 단순하여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인차 싫증을 느끼고 사고가 다른 데로 돌려지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려서부터 지니신 창조적인 사고력은 보통 어린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떤 사물현상을 대하셔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셔도 그렇고 그저 스쳐 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어떻게?≫ 하는 식의 물음을 제기하시고 그 본질과 원인을 밝혀내곤 하시였습니다. 또한 그이께서는 비상히 예리하고 높은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 남들이 가름할 수 없는 사물발전의 추이를 가장 재빨리 가장 정확히 알아내시였으며 하나를 아시면 둘을 넘겨짚으시고 10을 헤아리시였으며 100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보여주신 창조적인 사고력에 대한 실례를 몇가지 보겠습니다.

주체39(1949) 6월 하순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경대 고향집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날씨는 맑게 개여 있는데, 비가 곧 올 것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니 넓고 넓은 하늘 어디에도 비구름은 보이지 않고 다만 서켠에 그저 보통정도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아 맞추시냐고 물으시며 저녁해의 둘레에 영롱하게 빗겨있는 해무리를 바라보시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저런 무지개를 해무리라고도 하는데 저것이 생기면 이튿날에는 비가 온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비가 올 징조는 또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저기 제비들이 들로 낮춰 떠서 돌아가지 않느냐 제비들이 낮춰 떠서 돌아가면 꼭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님께서는 ≪글쎄, 그저 농사를 지으면서 보아 오니깐 그렇더구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경대에서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무리가 끼면 왜 다음날엔 비가 오는가? 그리고 제비가 왜 비가오기 전에는 낮춰 떠다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다음날부터는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자체로 분석하고 종합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간 다음 만경대로 가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동무들에게 아침노을이 끼면 비가 오고 저녁노을이 끼면 날씨가 왜 개이는가 하는 문제의 수수께끼를 하나 내시였습니다. 기상학 분야에 일정한 상식이 없이는 어른들도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여서 동무들은 알려달라고 장군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상히 예리하고 높은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 남들이 가름할 수 없는 사물발전의 추이를 가장 재빨리 가장 정확히 알아내시었으며 하나를 아시면 둘을 넘겨짚으시고 10을 헤아리시었으며 100을 내다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을이라는 것은 햇볕이 구름에 반사된 것이다. 따라서 아침노을이 생겼다는 것은 동쪽은 개여 있고 서쪽에는 구름이 끼여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저녁노을이 생겼다는 것은 서쪽은 개이고 동쪽에는 구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 지구의 북쪽에서는 항상 대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 아침노을이 생겼다고 하면 서쪽에 구름이 있다는 말인데 그 구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동쪽으로 밀려와 온 하늘을 다 덮어 버리고 비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만경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증조할아버님과 할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먼저 해무리가 생기면 왜 비가 오는가를 알아내셨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비가오기 전에 낮춰 떠도는 것은 제비가 아니라 곤충이라는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이께서는 비가 오려고 하면은 곤충들의 날개가 눅눅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높이 날지 못하고 낮춰 떠있다고 그래서 제비들은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낮춰 돌아다닌다고 씩씩하게 대답 올리시었습니다. 그러자 증조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증손자 분을 얼싸 안으시고 ≪우리 가문에 신동이 났구나.≫라고 목이 메이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경대 증조할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 몇 달로 만에 날씨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징후들이 내포되어 있는 원리들을 낱낱이 해명하시었습니다.

다른 사실을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체45(1956)년 7월 학기말 시험 때였습니다. 시험기간이어서 교원들도 학생들도 몹시 분주하였습니다. 생물시험을 치고 나온 교원은 규정대로 시험지 꼭대기에 쓴 학생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잘 꿰매고 봉인을 한 다음에야 채점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시험지를 채점해 나가는 교원의 마음은 흐뭇하였습니다. 이 학교에 부임된 후 처음으로 받은 시험인데 학생들이 비교적 문제의 답들을 정확히 썼던 것입니다. 교원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잘 파악했을 때처럼 기쁜 때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심과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시험답안들을 열심히 채점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험의 기본문제인 생물계의 다양성과 적응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우려하였는데 생각과는 달리 모두 잘 썼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채점을 해나가던 교원은 문득 한 시험답안지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시험답안지들과는 너무도 다른 시험 답안지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1. 생물계의 다양성과 적응성. 지구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생물체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첫 문장을 읽은 교원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예외 없이 ≪영국의 이름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자기의 저서인 ≪종의 기원≫에서 생물계의 다양성과 정응성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하고 첫 시작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원이 강의해 준 그대로이며 또 교과서에 쓰여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타난 답안지에는 첫 시작부터가 다른 답안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이런 시험답안을 썼을까?≫ 교원은 몹시 알고 싶었으나 이미 답안지들을 다 꿰매어 봉인해 놓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 답안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답안지에서는 먼저 생물계가 다양하게 된 원인을 다양하게 밝히고 그처럼 다양한 생물체들이 또한 주위 환경에 다 적응되어 있는데 대해서 이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찰스다윈의 진화론이 반동적인 조화설을 짓부신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근거를 밝혔으며 유전과 변이, 자연도태와 인공도태의 호상관계를 풀었습니다. 답안지에서는 또한 다윈이 아직 완전히 밝히지 못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유전과 변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더욱 심화함으로써 농작물의 정당 수확고를 높이고 집짐승의 새 품종을 길러내는데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답안지를 읽고난 교원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생물학적 참고서들을 읽으며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교원 뿐 아니라 다른 교원들의 경우에도 그 유년기의 학생들이 토하나 빠짐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써내는 것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학생이 교원이 해준 강의 체계와 교과서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자체로 체계를 세워 가지고 내용을 전개한다는 것을 교원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얼마 후 시험답안지를 돌려읽고 난 다른 교원들은 한결같이 그 학생의 풍부한 지식과 창조적 사고력 독창적인 주장에 대해 경탄해마지 않았습니다.

채점이 다 끝나고 봉인을 뜯는 순간 교원들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감동에 젖어 들었습니다. 그 시험 답안지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쓰시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으로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창조적인 사고력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하는 독창적인 것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천품으로 지니신 크나큰 담력과 강의한 의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했는데요. 이건 조국통일의 주인, 조국통일의 주체가 바로 우리 민족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 말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확인한 거라고 하겠죠.

장장 반세기여에 걸친 민족분열, 국토분단의 수난의 역사는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산생된거잖아요. 외세는 지금도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악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덩이를 문 짐승은 고기덩이를 놓으려 하지 않죠. 미국은 한국이라는 맛나는 고기덩이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통일을 쟁취해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해내외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직접적 담당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일의 주체는 통일실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남과 북,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우리 민족입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으로 되는 건 우선 우리 민족자체가 조국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나라의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새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며 남과 북사이에 민족적 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며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더욱이 현시대는 자주시대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무너지고 압박받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건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입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으로 되는 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통일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사상에는 민족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숭고한 민족애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운동에서 시종일관하게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라는 철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인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며 같은 민족으로써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며 민족구성원들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써 대단결하는 원칙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남과 북, 해외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은 소속도 처지도 다르지만 그 누구든 다같이 한겨레이며 통일을 이루어야 할 통일운동의 주인들입니다. 주인들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소속과 처지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힘을 키울 수 없고 그러면 통일운동이 그만큼 떠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겨레는 다같이 민족구성원이고 조국통일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소속과 처지에 관계없이 단합해야합니다.

그러면 현시기 우리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겁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세상에 천명한 민족자주통일선언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통일의 주인이며 그 누구도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민족자주통일을 근본핵,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통일투쟁의 성패는 바로 공동선언을 어떻게 고수하고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 해외 어디서 살든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해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요인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는 외세와 공조하려는 자들은 예외없이 반통일분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함께 사대매국, 반통일역적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2, 5월 5일

메이데이와 노동대중의 자세

5.1절은 국제노동절인데요. 이날을 계기로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권력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마스고 자기의 권리를 찾을 결의를 더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국제노동절 112주년과 관련해서 ≪메이데이와 노동대중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5월 1일은 국제노동절인데요. 올해는 메이데이 1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메이데이와 노동대중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정원 : 아시겠지만 1889년 7월에 세계의 노동운동가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를 열고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기념하기로 했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명절을 갖기까지에는 5년간의 힘겨운 투쟁이 있었어요. 1821년 이탈리아 루카시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해서 시위를 벌인 이후 자본의 착취와 횡포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들은 8시간노동제도입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단행을 했는데 그들은 경찰의 탄압으로 600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굴하지 않고 단결된 역량으로 싸워 승리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투쟁을 기념을 해서 5월 1일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로 정하고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기로 했던거죠.

사회자 : 이날을 국제노동절로 정한 건 한마디로 노동자계급이 국제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고 노동해방을 이룩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1890년 5월 1일 첫 노동절대회때 전세계 노동자들이 외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통해서도 잘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때문에 해마다 5월 1일이 오면 세계 수천명 노동자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하면서 단결된 노동자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노동절을 되찾고 자기들의 단결된 위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왔죠. 아시겠지만 지난 시기 이 땅의 위정당국자들은 노동자들이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걸 가로막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승만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적으로 이용하는 날이라며 3월 12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박정희군사정권은 그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7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성장한 민주노조**은 89년부터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메이데이의 간판을 되찾았고 그후 해마다 기념대회를 열어왔어요.

사회자 : 우리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참다운 삶의 권리를 찾고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위해 오랜 세월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노동자계급은 앞으로도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땅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사상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주할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은 오늘 이 땅의 수백만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 광풍은 곧바로 노동자의 가정에도 들이닥쳐서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시켰죠. 그 결과 단란하던 가족은 살길을 찾아 흩어졌고 노동자의 자식들은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게 **자, 방랑자, 노숙자, 고아, 자살참극 등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잖아요.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자수만해도 세계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힌다니까 더 말해 뭘하겠습니까.

사회자 :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기앞에 닥쳐오고 있는 죽음을 앉아서 고스란히 **수가 있겠습니까. 더이상 권력과 자본에 의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말고 노동자의 참된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더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하겠죠.

윤정원 : 노동자의 참된 자유와 권리는 그 누가 선사하는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 자신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거죠. 오직 1300만 노동형제가 마음과 발걸음을 맞춰 단결된 힘으로 권력과 자본의 억압을 반대해 싸울 때에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데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할 우리 노동자대중의 자세라 하겠죠.

사회자 : 노동자대중은 5.1절 노동절을 맞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투쟁각오와 결의들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그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겠죠. 그러면 오늘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싸워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건지 그에 관해서 좀더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윤정원 : 우선 노동운동단체들이 오늘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처럼 처참하게 유린하는 장본인인 바로 미국과 그에 붙어 추종하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 악덕 업주들이라는 것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똑바로 인식시키는데 응분의 힘을 넣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기초해서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노동자들이 굳게 단결하는 것 아닙니까. 승리의 비결은 단결에 있는 거죠.

윤정원 :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의 주위에 굳게 뭉쳐서 단결된 힘으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국제적 연대도 공고히 하는데 응분의 힘을 넣어야 할줄 압니다. 당면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을 결사반대배격하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으로 노동운동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메이데이에 당면해 노동해방을 기어이 이룩할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고 보다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줄 압니다.

노동자의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는 국제노동절 메이데이. 노동으로 단련된 무쇠주먹 치켜들고 노도와 같이 진군하는 노동자대중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동자대중은 국제노동절을 계기로 더욱 단결해서 짓밟힌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되찾고 6.15공동선언실천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3일

한총련은 이미 합법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한마당≫ 열려

한총련 출범식 본행사를 앞둔 4일 밤 9시 40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한마당≫이 1만여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산업대 운동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연출가 김정환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 무대는 가수 이정렬이 반전 노래인 ≪소낙비≫를 부르면서 시작돼 신동호(시인), 허정수(가수)부부의 시낭송과 노래, 가수 윤민석씨의 노래, ≪통일의 꽃≫ 임수경씨의 인사말과 노래가 이어지는 등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세대들이 한총련의 출범을 축하하고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상임대표인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여러분은 외롭지 않다≫고 인사한 뒤 ≪범사회인 대책위는 10만명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유엔 인권위에 제소했다≫며 ≪한총련이 7월까지는 정당하게 자주통일의 구심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오헌 상임대표는 ≪한총련은 법률적 합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합법화 되었다≫며 ≪오늘 행사가 치뤄지는 산업대엔 긴장감 없이 흥겨운 5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 전대협동우회 회장은 ≪전대협과 한총련의 16년 역사는 짧지 않다≫며 ≪96년, 97년 힘들고 어려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한총련 합법화의 절박성을 ≪80년 광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뤄야 하며 6.15 선언 이후 통일운동을 힘차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시했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경의선 타고≫의 작사자 김정환씨와 작곡가 윤민석씨 등이 함께 이 노래를 합창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손장래 민화협 상임고문이 격려의 말을 하기도 했다.

또 ≪한총련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는 배우 권해효씨가 나와 ≪노사모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민가지 마세요. 노무현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민가지 마세요. 한총련이 있잖아요≫라고 말입니다≫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그 날까지 쓰러지지 말고 꿋꿋하게 분투하길 바랍니다≫고 해 학생들의 박수세례를 받기도 했다.

한총련은 97년 5기 한총련 때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지금까지 기수가 바뀌어도 계속 이적단체로 묶여 있어 수배자와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지난 3월 20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임수경씨는 ≪학생들이 정말 밝아 21세기 한국의 장래는 매우 밝다≫며 ≪나의 조국이 자랑스럽고 한국인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5/04

≪내가 만난 김일성 김정일≫

서경원 전 의원의 한총련출범식 강연회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한자어가 쓰인 화선지를 칠판에 붙여놓는 서경원 의원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울리는 1공대 311 강의실. ≪내가 만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갔지만 지금까지 공부하는, 13대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함평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농민운동한 사람이다≫고 자신을 소개한 서 의원의 **김일성**주석 이야기가 이윽고 시작됐다.

서의원은 옳은 말하면 잡혀가는 사회에서 ≪이념의 잣대로 사람을 구분 짓는 현실이 답답했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88년 평양행을 결심했다.

서의원은 **김일성**주석을 만나기 전 몇가지 주의사항을 이북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북 사람들의 대답은 ≪서선생 알아서 하시라요≫였다. 이에 서의원은 ≪자본주의로 병든 나 자신을 깨달았다≫며 남한에서 동사무소만 가도 무엇 때문에 왔냐며 경계심을 먼저 보이는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고 말한다.

또한 ≪추기경보다 격없이 대해 주는 주석의 모습에 놀랐다≫며 권위주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가짜 주석을 데려다 놓고 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할 만큼 놀라웠다≫고 회고한다.

조, 서숙 섞인 밥에 삼나물과 된장국을 반찬으로 들쭉술 한잔을 걸친 평범한 식사도 김주석과의 만남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강연 막바지에 서의원은 학생들에게 ≪이북 사람들이 적화야욕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할 때 이북 사람들의 심정은 서울시민들이 40㎞도 되지 않는 휴전선에 폭탄이 떨어질 때 느끼는 심정과 같다≫며 ≪총을 겨눈 상태에서 교류는 결국 헛것이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쉬운 것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며 이산가족 편지 교환,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제안했다.

이번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은 ≪내가 만난 **김일성**, **김정일**≫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 ≪이북의 신사고와 우리식 사회주의≫, ≪대학내 미국문화 비평≫ 등 다양한 강연회가 진행됐다. 새내기에서부터 선배들까지 학년에 구분없이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미국을 바로보는 계기가 됐고 또한 한민족인 이북을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 민족으로 여기는 기회가 됐다.

전대기련 광전지부
유뉴스 2002/05/04

2002년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자

10기 한총련 출범식 열려

≪우리 이제 열 살입니다.≫

≪2002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것입니다.≫

4일 저녁 10시 40분경 10기 한국대학생 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의장은 축사를 통해 ≪5월 축제와 한총련 출범식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6.15 공동선언은 ≪바로 57년간 남북이 막혀있던 분단의 벽을 허무는 통일의 이정표였다≫고 평가하고 ≪6.15 공동선언을 사수하고 반드시 번영된 조국에 이르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한다≫며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의 길에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구정모(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은 ≪5월 축전을 만든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며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10기 한총련 출범식은 5월 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일 하루동안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한국학생운동 20년 토론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민족도 하나 젊음도 하나, 행동하는 젊음 유쾌한 통일예감,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나부끼는 가운데 1만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서울 산업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특히 출범식 본행사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해외본부≫의 연대사,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의 축하 편지가 낭독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정현찬(전농 의장), 정명수(전대협동우회 회장), 임수경씨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총련 10기 출범을 축하해 주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5/05

남북이 한반도에 대화의 훈풍을 불게 하다

최근 한반도에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이미 4월초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으로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한반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더니 최근 북일, 북미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불과 두세달전 한반도의 분위기를 되돌아본다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먼저,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적십자사회담에서 △이북의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실시 및 결과 대일 통보 △일본의 이북인 행불자 조사 및 결과 대북통보 △올 여름 이북 거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6월께 차기 적십자 회담개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이은 북일관계 개선이 그동안 단절된 양국의 국교수교 회담으로 나아갈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인 북미간에도 곧 5월중에 대화가 재개될 것이 명확해졌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이 짧은 성명 안에는 ≪자존심 강한≫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즉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가 방북후 이북의 미국과의 대화용의 표명 전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북이 직접 제의해올 것을 요구하며 유보해 왔는데 그게 충족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지난해 6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대북대화 3대의제로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를 이번에도 ≪잊지 않고≫ 그대로 강조한 것이다. 어쨌든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5월 중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는 2000년 11월 북미간의 미사일회담 이후 18개월만의 대화이자 부시 행정부 들어 실질적인 첫 공식대면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대화재개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편으로, 무엇보다 양국의 대화재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행정부 들어 양국은 대화는커녕, 특히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악의 축≫ 발언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분위기에까지 갔던 것을 상기한다면 양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로 한반도 정세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이 말해주듯 양국은 서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싸움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직접 몸을 부딪히며 살바싸움을 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잠재되어 있던 불안정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양국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국의 대화의제와 요구는 그간 대화단절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왔다. 미국은 위 성명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듯이 미사일, 핵, 재래식 무기감축 등을 제시해 왔고, 이에 대해 이북 역시 줄곧 클린턴 행정부 시기 말에 합의한 북미공동코뮤니케 수준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힘과 힘이 부딪칠 때는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완강히 주장할 수 있지만 대화란 어차피 상대편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양국이 다소의 입장변화를 통해 대화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미국은 이북이 도저히 받기 어려운 3대의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하며, 이북 역시 클린턴 시절 이뤄진 합의 수준에 미련을 갖지 말고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편,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 조만간 있을 미국의 연례 테러지원국 발표에서 이북이 올해도 포함될 것이 확실해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의 사안들이 양국 관계개선에 주요 변수로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4월초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에 이어 4월말 동시에 이루어진 이북과 미.일과의 관계개선의 흐름은 각국을 위해서나 한반도의 정세를 위해서나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재개되는 북미, 북일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과거의 무수한 예에서도 보듯 전혀 속단이나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분위기의 돌변이 임 특사의 방북과 남북대화 재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남북이 한반도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대화의 훈풍이 이북과 미.일과의 관계개선의 종착역인 국교정상화로 가는 장정의 단초가 되고 남한이 이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시론
통일뉴스 2002/05/01

민주노총, 노동자후보 대거 출마

지방선거 100여명 후보 출마. 당선운동에 온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6.13 지방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의 당선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6월 지자체 선거에 100명 안팎의 노동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조합원과 가족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등 노동자 후보 지지를 위한 재정지원과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선거와 상반기 투쟁을 결합하고, 선거운동원 파견 등을 통해 후보의 당선과 국민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보정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이수호 위원장은 ≪6월 지자체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대도약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디지털말 2002/05/02

민화협 ≪6.15선언 공동행사≫ 제의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 개최 실무회담을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자고 3일 북측에 제의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채택 2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담은 팩스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 7대 종단과 통일연대 관계자 1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강산을 오갈 설봉호는 오는 13일을 제외하고는 객석이 남아있지 않아 실무회담이 연기될 경우 행사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북측과의 실무회담에서 마라톤, 생태환경 사진전, 씨름 등 민속.문화행사와 6.15 공동선언 채택 2주년 공동행사 개최 장소, 행사 명칭, 식순 등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화협과 7대종단, 통일연대 관계자들은 9일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결성할 예정이다.

심규석기자
연합뉴스 2002/05/03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

▶ 서론

▶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와≪신식민지≫
민족해방혁명과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서론

최근 발표된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에 대한 열 가지 논제≫(이하 ≪열 가지 논제≫)가 민족민주대오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이 집필주체인 최성원동지의 논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논문일 뿐 아니라 최근년간 공개된 논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동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집필한 이 노작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 운동대오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성원동지의 논문, ≪열 가지 논제≫를 연구분석한 글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 글이 ≪열 가지 논제≫에 대한 동지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이 글은 최성원동지가 제출한 열 가지 ≪논제≫에 대한 우리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혁명이론에 관한 최대문제작인 ≪열 가지 논제≫는 말 그대로 열 가지의 논제를 설정하며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견해들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열 가지 논제≫에 피력된 견해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개념과 표현을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통일혁명이론의 주요논제를 ≪열 가지 논제≫의 열 가지 논제로 설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하며 그 논제들을 존중하고 동지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그 항목들의 순서로 이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열 가지 논제를 그대로 토론의 기본주제로 삼았으며 그 하위에 하나에서 셋 정도의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였다. 우리의 토론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작원문을 정중히 인용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작원문이야말로 통일혁명이론을 전개하는데서 불변의 원칙, 절대적 기준으로 되기 때문이다. ≪열 가지 논제≫가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과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한 후 발표된 논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련문헌을 인용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작원문과 조선노동당, 전위조직의 관련문헌에서 인용한 부분은 ≪열 가지 논제≫에서 인용한 부분과 그 권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열 가지 논제≫를 인용한다. 이는 토론주제와 관련있는 ≪열 가지 논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성원동지의 다른 논문이나 한호석소장의 주요논문의 관련된 부분도 간단히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견해를 피력한다. 우리의 견해는 ≪열 가지 논제≫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전제에서 전개된 것이다. 우리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이론을 연구하는 측면과 동지들이 ≪열 가지 논제≫의 개념과 논리를 해설하는 측면, 개념상의 혼동을 방지하는 측면 등에 유의하였다.

무릇 개념이란 어떤 관점, 어떤 조건에서 보는가에 따라 천변만화한다는 변증법에 동지들이 유념한다면, 이 글은 매우 흥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와 ≪신식민지≫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4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은 강령적 교시를 주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고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북조선은 언제나 조선혁명의 기지로 된다고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시었다.

≪우리는 언제나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기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원칙적 입장을 지켜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77(198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우리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입니다.≫

통일혁명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은 각각 1969년 8월과 1985년 7월에 발표한 강령,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에 이른바 표시(≪≫)를 하며 ≪괴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가증스런 식민지지배를 분장하기 위한 간판이고 그 정권은 미제침략군과 원조달러에 의해 부지·조종되는 신식민주의의 도구이며 매국배족의 괴뢰정권이다.≫(통일혁명당의 강령)

≪참으로 ≪한국≫의 지나온 40년 역사는 민족 자활이 아니라 망국의 가속화과정이었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의 확대재생산과정이었으며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확산과정이었다.≫(한국민족자주선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혁명기지와 ≪신식민지≫의 관계, 관련된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그러므로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에서의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밖에 없습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라는 개념은, 혁명의 수령,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혁명무력, 혁명적 인민이 존재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신식민지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총독부 대신에 식민정권을 내세워 억압·착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라는 의미입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조선혁명이라는 개념은 남조선이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지역혁명(남조선 지역혁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혁명기지의 반제혁명역량이 신식민지인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남조선 해방혁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첫째, ≪신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지이다. ≪구식민지≫와 구별하여 ≪신식민지≫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되어도 ≪신식민지≫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

않는다. 식민지에 ≪구식민지≫와 ≪신식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현대제국주의의 통치방식상의 변화를 사회성격의 변화로 치환해서는 안된다. 이는 일부 민중민주계열운동가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성격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조건에서 이론실천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신식민지≫라는 개념사용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물론 개념사용이 적확한 최성원동지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우리는 ≪신식민지≫개념이 사회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규정이 아니라 본질상 식민지인데 미제국주의의 통치방식상의 변화를 강조한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혁명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민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도 이 글에서 ≪신식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혁명기지이자 유격구이고 식민지이자 적통치구역이다. 항일시기 공산당의 영도하에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가 통치하는 유격구와 일제치하의 적통치구역은 오늘날의 혁명기지와 식민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항일유격구와 혁명기지는 ≪혁명의 수령,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혁명무력, 혁명적 인민이 존재하고 있는 근거지≫라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항일시기 적통치구역과 오늘의 남측지역도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항일시기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의 혁명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조선혁명이라고 불렀으며 하나의 조선에 하나의 수령, 하나의 사상과 노선, 하나의 당, 하나의 통일전선, 하나의 주체가 존재하였다. 그 때와 본질상 차이가 없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조선혁명이자 혁명기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혁명이다. 혁명을 체제변혁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남조선혁명을 남조선해방혁명으로 볼 때 조선혁명은 남조선해방혁명이다. 남조선해방혁명이란 식민지해방혁명이므로 조선혁명은 식민지해방혁명이며 식민지해방혁명이란 곧 식민지를 혁명기지화하는 것이므로 결국 조선혁명은 혁명기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북반부의 혁명기지에 의거하여 남반부의 혁명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해방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종국적인 해방을 이룩하였다. 물론 우리는 베트남과 다른 방식으로 단번에 식민지를 해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혁명기지란 식민지에 대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식민지가 해방되어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말그대로 통일자주국가의 북반부와 남반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네째, 혁명기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반부를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민중의 자주적 의사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수립된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반면 이른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가 조선민중을 총칼로 탄압하며 남측에 비법적으로 구축해 놓은 괴뢰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은 48년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결정으로 보나 북반부 유권자 99.97프로, 남반부 유권자의 77.52프로가 참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에서 수립된 점으로 보나 명백한 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48년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반대성명과 4.3제주무장봉기나 5.10단선반대항쟁에 떨쳐나선 민중들에 의하여 철저히 부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에 나오는 ≪우리 나라≫와 ≪열가지 논제≫에 나오는 ≪우리 나라≫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혁명기지와 식민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반부와 남반부를 의미한다.

혁명기지와 식민지는 혁명적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인데, 그 대상이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두 지역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안에 해방된 ≪혁명기지≫와 미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라는 두 개의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섯째, ≪혁명기지론≫은 철저한 전국적 관점의 견해이다. ≪혁명기지≫와 ≪식민지≫라는 범주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혁명이론을 이른바 ≪혁명기지론≫이라고 한다면, ≪혁명기지론≫이야말로 철저한 전국적 관점의 견해이다. ≪혁명기지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두 지역에 대한 본질을 혁명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체조선을 하나의 차원, 곧 전국적 관점에서 더욱 철저히 바라보게 되었으며 반국적 관점, 지역적 관점은 더이상 발붙일 근거를 잃게 되었다. ≪열 가지 논제≫가 집필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혁명기지≫와 ≪식민지≫라는 범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근거한 철저히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적인 견해이다. 우리는 미제가 그어놓은 38선과 미제가 조작한 괴뢰정권을 절대화하며 북남분리, 남측중심의 관점에서 혁명이론을 전개하는 갖가지 ≪반국혁명론≫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민중의 최고영도자이시다. 조선은 혁명기지와 식민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기지와 식민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체 조선의 최고영도자이시다. 조선민중에는 혁명기지의 민중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민중도 포괄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기지민중과 식민지민중을 모두 포괄하는 조선민중의 최고영도자이시다. 조선혁명은 혁명기지에서만이 아니라 식민지까지 포괄하며 통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기지와 식민지에서 전개되는 모든 혁명을 영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최고영도자이시다. 나라도 민중도 혁명도 모두 하나이며 그 최고영도자도 당연히 한 분이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붉은 수수밭≫

감독 장예모와 여배우 공리가 호흡을 맞추며 중국민중의 삶과 투쟁을 그린 역작으로서 88년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 수상. 1930년대 중국민중의 삶과 반일투쟁이 붉은 수수밭을 배경으로 생생하게 벌어진다. 홍주를 만들며 부르는 노동자들의 노래, 일본놈들이 중국공산당원의 두피를 벗기는 잔혹한 모습, 그리고 떨쳐나선 중국민중의 영웅적 투쟁이 광활한 중국벌판에서 물결치는 붉은 수수밭과 함께 잊지못할 영상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조선민족의 영웅적 반일투쟁과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 감동이 살아날 영화. 조선이든 중국이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체는 민중이며 그 선두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우리에겐 이보다 사상성에서나 예술성에서나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피바다≫라는 명작이 있다. 우리는 대체 언제쯤이나 ≪피바다≫를 마음놓고 감상할 수 있을지...